

<b>인터넷총국 (홈페이지 <a href="http://data.rutc.com">http://data.rutc.com</a>)</b>	
후원: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	
<b>분류</b>	구역공과-2017년 39과
<b>제목</b>	<b>전도의 증인- 바울과 디모데의 인생스토리</b>
<b>성경</b>	<b>디모데후서 2:1-7</b>
<b>일시/장소</b>	2017년 9월 24일, 부산입마누엘교회
<b>강사</b>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 성경말씀 (디모데후서 2:1-7)

- 1/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 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 3/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 4/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 5/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 6/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 7/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충명을 주시리라

♣ 구역공과 자료 ♣

♣ 서론

**1. 바울과 디모데가 붙잡은 언약**

- 1) 바울이 붙잡았던 언약
  - ▶ 행9:15, 행20:24, 행19:21, 행27:24
- 2)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붙잡았던 언약
  - ▶ 딤후1:2-5, 딤후2:1-7, 딤후3:14-17

**2. 바울과 디모데의 언약의 여정**

- 1) 바울의 언약의 여정
  - (1) 바울은 최고의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가지를 몰랐다.(행9:1-10)
    - ▶ 바울의 배경- 베냐민 왕족 지파, 세계 3대 문학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 예루살렘 유학, 가말리엘 스승의 가르침, 로마 시민권, 바리새 교육을 받은 엘리트(율법 전문가), 지식과 철학, 언어 훈련을 받은 엘리트(빌3:4-6)
  - (2)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행9:11-15)
  - (3)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행13장-28장)
    - ①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고 구원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았다(행13:48)
    - ②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고 중직자를 세웠다.
      - ▶ 행14장-디모데, 행16장-루디아, 17장-야손, 18장-브리스가 부부,
      - ▶ 중직자- 롬16장, 고전16장, 골4장, 딤후1:4-5
    - ③ 세계 살릴 제자와 후대(RUTC)를 남겨 로마를 살렸다.
      - ▶ 회당운동(행17:1-2, 18:4, 행19:8), 두란노 운동(행19:9)
  - (4) 바울은 제자들과 5가지가 통했다.(롬16:25-27)
    - ① 기도제목 ② 전도방향 ③ 메시지 ④ 이면계약 ⑤ 중심(결론-하나님께 영광)
  - (5) 바울에게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다.(고후12:1-10)
- 2) 디모데의 언약의 여정
  - (1) 딤후1:1-5,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개의 믿음과 전도자 바울과 통하는 눈물의 소통이 있었다.
  - (2) 전도자 바울을 만나 최고의 사명을 깨달았다.(행14:1-23, 행16:1-2, 딤후2:1-7, 딤후3:14-17, 딤후6:11-23, 딤후2:15)
  - (3) 디모데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로마복음화의 주역이 되었다.(딤후3:1-17)

**3.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성경의 증언**

- 1) 바울- 행9:15, 고후12:9-10, 고전15:10, 행27:24-25
- 2) 디모데- 행16:1-2, 롬16:21, 고전4:17, 16:10, 빌1:1, 딤후1:2, 딤후1:2, 몬1:1

(The end)

♣ 구역공과 - 녹취 자료 ♣

♣ 서론- 말씀 소통

▶ 이번 주 공과다. 바울과 디모데의 인생 스토리라고 되어 있다.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를 잘 아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모르고 있다. **바울과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다. 말씀 소통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이런 걱정을 조용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목사님, 부교역자 분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 아니, 좀 많은 아이들이 시험에 든다고 하더라. 그대요? 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기가 쉽다. 왜냐하면 나를 한 번 돌아봤다. 내가 옛날에 부교역자 때 이런 저런 심부름을 자주 하다보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막 교회 이것저것 급한 심부름, 잔심부름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자주 거기에 신경 쓰다보니까 예배가 안 된다. 나는 오늘 편안하게 주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해야 되는데 부교역자들은 교회에 일하러 온다. 예를 들어서 밖에서 누가 과함을 쳐도 부교역자들은 쫓아나가서 말려야 된다. 내가 그 짓을 몇 년 하고 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것이다.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되는 게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다짐을 하고 내가 목사님께 얘기했다. 목사님, 제가 예배가 안 된다. 제가 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랬다. 그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제게 했다. 맞다, 내가 옛날에 부교역자 때 나도 그랬었다.

저는 예배 회복하면서 모든 게 다 회복 되었다. 가장 중요한 다 깨닫고 했어도 안 되었는데 예배를 내가 제대로 회복하니까 다 살아났다. 그때부터 개인 예배도 하게 되었다. 내가 개인 예배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찬송을 부르는데 말이죠, 굉장히 내가 은혜 되는 상황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왜 진짜 내가 굉장한 은혜 받는 것 있잖아요? 그게 내게는 별로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국내 히트치고 있는 노래가 뭐냐? 그런 걸 더 잘 안다. 이상한 교역자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목사님 차를 내가 탔었다. 문을 열어보니 세상 노래들이 많더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혼자서 하는 예배를 회복했는데 제가 말씀을 보고 찬송을 불렀다. 완전히 다르더라.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흥얼흥얼 부르는 찬송과 그냥 내가 생각이 나서 부르는 찬송과 예배하면서 부르는 찬송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별 것 아닌데 내 모든 게 회복 되어 지기 시작한 것이다.

▶ **이미 구원은 내가 받았는데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 성취를 깨닫지 못하니 말씀 소통이 안 되어 진단 말이다.**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하니 하나님 말씀이 보인다. 얼마나 지금은 제가 어지간하면 우리 비서들이나 많은 사람이 보고할 때 그런 앞으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거의 다 얘기한다. 말씀 흐름이 보인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다 그렇게 된다.

▶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말씀 소통이었다. 말하자면 복음 소통이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중심해서 이제 많은 게 되어 지지 않는가? ▶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모였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다. 모든 중직자, 권사, 안수 집사, 장로 이런 것들을 10년대 별로 조직을 짜라. 30대가 장로 되면 30대 장로 몇 명 중에 회장 뽑아라. 권사님 중에 회장을 뽑아라. 40-50대 따로 뽑아라. 안수 집사님들 그렇게 권사, 장로님들도 그렇게 해라. 거기다가 각 기관장을 불려라. 각 주일학교 말은 리더들 불려라. 그렇게 모여서 기획 당회를 해라. 거기다가 말씀을 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팀들에게 전달하도록 만들어라. 왜 10년대 별로 하느냐? 숫자가 많으면 전달을 못한다.

**전 교인이 말씀 소통하도록 해라.** ▶ 이걸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놓치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은 다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큰 응답 세 개가 출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 아닌가? 이걸 못하는 것이다. 그거 하는 게 교회다. 교회란 건 어마어마한 단어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집단이다. 교회다. 천국 가기 전에 일단 지상에서 모형이 이뤄지는 곳이 그게 교회다. 그래서 모든 단체는 여야가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는 여야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만은 여야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란 곳이 어마어마하고 기가 찬 곳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그때 이게 보인다. 얼마나 대단한가?

**1. 언약**

- ▶ 자, 이 사람들이 붙잡은 언약이 뭐가요?
- 1) 행9:15
  - ▶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한 마디로 이걸 붙잡았잖아요, 행9:15이다. 이때 붙잡은 언약이 너는 모든 나라, 많은 나라의 왕과 많은 나라의 증인들 앞에 증인으로 불려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 2) 딤후1:4-5
  - ▶ 이 언약을 디모데는 벌써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잡았다.

## 2. 여정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다. 언약은 반드시 여정으로 나온다. 언약은 공부로 하는 게 아니라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램넨트란 단어를 붙이고 저니란 단어를 붙인 것이다. 그래서 램넨트에게 언약을 맡을 쓰고 저니란 말을 쓴다. 커버넌트 저니는 언약의 여정이다. 그래서 지금 램넨트 움직이는 것을 램넨트 여정이라고 그린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귀한 존재나 한이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 상관없다. 만약에 언약의 여정 밖에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위험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혹시 그럴 수 없지만 다 가졌다 할지라도 언약의 여정 밖에 있다? 그건 실재자다. 그래서 세상에 문제가 자꾸 오는 것이다.

1) 바울, 빌3:1-8, 행9:1-15(천명, 소명, 사명), 증인(행13장, 16장, 19장), 제자

▶바울의 여정을 보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다. 빌3장에 보면 고백을 했죠, 이 사람이 꺾박자로 나섰지 않는가?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천명, 소명, 사명을 받게 된다. 자, 우리가 지금 굉장한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아야 된다. 뭐 할 것이냐? 중요하지 않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천명이다. 뭘 하나? 이게 아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그건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영으로 듣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굉장한 응답 받았잖아요.

**시므이가 욱을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천명이다. 그러면 그 욱을 가지고 나를 조명하는 것이다. 소명이다. 그러면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 살리고 나타내야 되겠죠? 사명이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제는 증인으로 서게 된다. 특히 행13장, 16장, 19장에는 흑암이 꺾이는 증인으로 서게 된다. 그리고 바울은 제자들하고 많은 메시지를 통하게 된다. 이게 바울이다.

2) 디모데, 눈물, 딤후2:1-7, 진도자

▶디모데의 여정을 보시라.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다. 딤후 1:4-5에 보니까 내가 네 눈물을 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그 복은 별 복이 아니다.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 눈물을 안다. 이 눈물은 상처의 눈물이 아니다. 이 눈물은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다. 그렇죠? 이 눈물은 목포의 눈물 그런 거 아니다. 이 눈물은 다른 것이다. 그게 디모데와 바울이 소통이 되었다. 어떤 눈물인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로마에 속국 되어 졌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다른 눈물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소통이 된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사명을 주었다. 딤후2:1-7이다. 그리고 뭘니까? 마지막 사명을 주었다. 너는 진도자다. 이게 바울과 디모데의 여정이었다. 감사하죠?

## 3. 증거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남게 된다. 여러분이 이 언약 말씀 소통 되는 언약 속에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온다. 증거가 나와야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1) 행9:15

▶자,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행9:15에 본인이 말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태한 나의 그릇이다.

2) 딤후1:4-5

▶많이 있습니다만 딤후1:4-5 같은 바울이 한 얘기다. 자세히 보시라. 본인들이 한 얘기가 아니다. 바울을 보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준 메시지다. 이걸 디모데가 내가 눈물을 가졌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 바울이 보고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구나, 여러분들이 속지 마셔야 될 것은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맞지만 맞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조금 싫어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진짜 어려움 왔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아시겠죠? 그때 여러분 적당하게 해놓으면 안 찾아온다. 왜냐? 까딱한 줄 아니까, 여러분 조금 꺾박박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 진짜 언약 잡고 있는 표지가 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것처럼 한다. 그게 아닌 것이다. 진짜 얘기는 여러분에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전에 몇 번 얘기 한 했는가? 우리 장로님이 말이죠,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전부 출판이고 자기는 같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더라. 장로님이 싫어하더라. 장로님이 싫어하니까 안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이 되겠는가? 그런 사람 생각이다. 장로님은 복한의 예를 두고 왔으니 학생을 도와줬다고 하더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중요한 일 생길 때 장

로님에게 갔다. 그 분은 소문 날 만큼 돈을 벌었다. 지금도 부산 가면 버스 노선 속에 보면 조방 앞이라고 있다. 조방이다. 조방은 조선 방식이다. 조선 방식이 없어진지 몇 십 년 되었다. 조선 방식 없다. 그런데 그 동네가 조방이다. 얼마만큼 유명한 회사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인도 받았냐면 방식 그만 두었다. 그 뒤에 방식 시대가 가버렸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간증을 내가 들으면서 그래, 훌륭하다기 보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게 그렇게 큰 축복이구나?

## ◆ 결론- 증인

▶증인이다. 증인은 뭐죠?

1) 아는 자

▶아는 자다. 증인이다. 모르는 데 증인 될 수 없다.

2) 본 자

▶본 자다. 안 봤는데 증인 될 수 없다. 교통사고 내가 봤는데 이 분이 차를 들이 받아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내 생각인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안 그래요?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 얼굴 보니까 이 사람이 사고 낸 것 같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증인은 본 자다.

3) 가진 자

▶그 정도가 아니다. 가진 자다. 증인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오늘 조찬당회 때 말씀 드린 것 장로님들 꼭 기억하시고 모델 교회되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델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어찌 되는지 아시는가? 하나님의 진짜 응답 받으면 어떤 사람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 그렇잖아요? 진짜 자살하는 사람들처럼 들린 사람들이나 악령 들린 사람들은 죽음이 겁 안 난다. 그렇잖아요?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욱 같은 인물은 자기 자녀가 다 죽었는데도 눈도 깜짝 안 했잖아요, 그만큼 응답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욱이 간단하게 얘기 안 했는가?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기도했다. 못 말리는 사람이다. 병들었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살기에 여호와와 살아계시니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 이 썩은 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이 몸 밖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다. 구원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것이다.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다. 사탄이 욱 앞에 무릎 꿇어버렸다. 나 중에 뭐라고 말했는가? 나의 가는 길을 오게 무릎 꿇어버렸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었나. 그랬죠? 그는 뜻은 일정하시니 반드시 뜻을 이루실 것이다, 욱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 붙잡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오늘 예배를 드려도 사실 내가 영이 살고 몸이 살고 다 산다. 이왕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 같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영도 살고 몸도 산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건강도 회복할 수 있다.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서 증거가 일어나고 있다. 요즘은 과학이 발전하니까 암 원인이 이것저것 있지만 최고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나왔잖아요, 성경은 그걸 일찍이 알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그것도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단어가 365번 나온다. 내 생각인데 왜 365번이냐? 하루도 염려하지 마라. 1년 내내 염려하지 마라. 그 말 아니겠는가? 성경은 미리 얘기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통게 나왔잖아요, 불신자가 낸 통게다. 병자를 치유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사람이 훨씬 빨리 나온 게 증거가 나왔다. 그래서 오늘 전국 세계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 예배하시면서 큰 치유와 은혜 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오늘은 특히 울산에 왔다. 제가 지금 메시지 하는 걸 전국이다 듣는다. 그리고 약 만 군 데 또 인터넷으로 나간다. 여러분의 모습이 100여 군데의 나라에 나간다. 그래서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조심해야 된다. 찬양하면 밖에 다 나간다. 주일 날 교회 오실 때는 제일 이쁜 옷을 입고 오시라. 여러분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몰려 올 것이다. 특히 전국 교회에 부탁하는 것은 임마누엘 울산 교회의 건축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셔야 된다. 제가 20년을 울산 지역과 전 지역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도 울산 지역에 본부 집회 할 교회가 없다. 그래서 그럴 일이 없지만 굶어 죽더라도 하시라. 말이 되는가? 그래가지고 전국 지역 집회 돌아가면서 하는데 울산만 할 곳이 없다. 이래가지고 체육관 빌리니까 울리고? 집회 되지도 않는다. 할 수 없어 이번에는 울산 집회를 부산에서 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 명칭은 울산 집회인데 장소는 부산에서 했다. 참 창피스럽잖아요? 여러분한테 임마누엘 울산 교회에서 하시라.

나는 대충 몇 분만 봐도 울산에는 대단한 분들 많다. 그렇죠? 나는 제일 처음 안 사람이 서 장로님인데 서 장로님이 교회에 대한 중심이 대단하다. 그 다음에 내가 간 강 장로님, 서 장로님 이런 사람 아는데 이런 분들 보니까 대단하다. 서영곤 장로님은 내가 보니까 사업도 잘하고 골프도 잘 친다. 골프를 치는데 이상하게 치더라. 만세 부르듯이 치더라. 엄청 많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헛갈려 버렸다. 서 장로가 골프 쳐버리면 다 헛갈린다. 와, 실력이 대단하다. 한 사람씩 쳐다보면 울산에 굉장한 분들 많

다. 지금 우리 늘 전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정 장로님 저런 분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중요한 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일꾼들을 많이 키우시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울산 복음화는 하고 가야 된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울산 복음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서울 사람 불러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정은주 목사 불러서 네 왜 울산 복음화 안 했어? 이렇게는 않다. 하나님은 강상모 어디 있어? 나와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는 시간표가 앞으로 계속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기도하겠다.

**(기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울산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울산 복음화하는 축복을 당연히 하나님이 복음 가진 교회에 허락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해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http://data.rutc.com> ②<http://www.jcking.net>

총 국 장: 김성호 목사(☎010-3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010-5375-9383 ✉3759383@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